

1년 남은 여수박람회 준비상황 총점검

SOC 확충·참가국 유치 ‘OK’ 숙박시설·박람회장 조성 ‘속도’



앞으로 1년여 후인 2012년 5월 12일이면 전 세계의 눈길이 여수로 쏠리게 된다. 세계인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3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00개 국가에서 800만명의 관람객이 '한국의 나폴리'를 찾게 되는 만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남도, 여수시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제관과 국가관, 한국관과 박람회 주제구현 핵심시설인 Big-O(바다전시장) 등의 박람회 준비의 기본인 박람회장 조성사업 공사가 한창이고 일부 미흡한 곳도 눈에 띄지만 SOC 등 기반시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8월12일까지 3개월간 열리는 박람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해본다.



지난 7일 여수를 방문한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국 대표들이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OC 등 기반시설 공사 박차=여수박람회조직위와 전남도, 여수시는 SOC 등 기반시설을 박람회 개최 전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교통량 해소를 위해 10조 3627억원을 투입, 2012년 대회 개최 전까지 16개의 SOC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위는 지난해까지 7조4280억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1조3119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완주~순천(118km) ▲목포~광양(101.1km)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는 ▲해룡~덕양 ▲우두~덕양 ▲중흥~왕지 ▲월전~중군간 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박람회조직위와 전남도는 기간 교통망이 계획대로 확충되면서 박람회 기간 중 여수시와 수도권은 3시간대, 부산은 2시간대, 목포는 1시간30분대로 접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개 도로 개설·확충 박차 박람회장 조성 40% 공정 93國 참가 확정 목표 근접

심각한 교통 대란이 우려되면서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 여수시내 '나포~호명' 구간(연장 4km) 도로 확충 사업도 박람회 전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람회장 주 진입로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9.6km)의 경우 박람회 기간 내 임시 개통을 통해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라선(익산~순천) 및 순천~여수,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올해 마무리되고 여수항정비 사업도 박람회를 앞두고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우선,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구간 확장(2.86km·396억) 공사는 현재 착공만 했을 뿐 국비(100억원)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조직위 운영결과, 미개통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석창교차로 입체화사업(220억)도 여지껏 국비 60억원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숙박, 고급 호텔 최대한 확보=전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실은 박람회 기간 중 필요한 고급 숙박시설 1만5261실 가운데 2069실을 확보했다. 나머지 1만3192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박람회 전까지 대명VIP 호텔과 오션리조트, 경도해양관광단지 등 12개소(1354실)가 준공될 것으로 보여 사정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직위와 전남도는 또 기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광주·목포·남원 등의 숙박시설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2154실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 박람회조직위 등은 아울러 템플스테이, 한옥민박 등을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박람회장 조성사업, 전체 공정률 40%=박람회장 조성사업은 크게 주제관·한국관·부제관이 들어서는 주최국 전시관과 참가자 전시관(국제관·지자체관·국제기구, NGO관, 기업관), Big-O와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의 특화시설, 아쿠아리움과 엑스포타운 등 민간에서 건설하는 시설 등으로 나뉜다.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40%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박람회조직위는 지난해 대부분의 시설이 착공한 만큼 대회 전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국내 7개 대기업은 박람회 기간 중 독점 기업관을 운영기로 하면서 박람회장 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0개 목표, 93개 국가 참가 확정=박람회 조직위원회가 BIE(국제박람회기구)의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승인을 받은 뒤 참가국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모두 93개국이다.

특히 조직위의 참가국 유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애초 목표로 했던 100개 국가 참가 유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6개의 국제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PEMSEA(동아시아세계환경협력기구)·UN·CBD(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도 공식참가를 통보해 온 상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홍보는 낙제

대학생 홍보대사 지원자 없어 못 뽑아

특산물 사업자 2차 모집 불구 못 채워

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 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학생 홍보 대사조차 뽑지 못하는가 하면, 특산물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아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했다가 참여자가 적어 조만간 재모집기로 했다. 선발되면 2학기 대학(원) 등록금에 상당하는 비용 외에 매월 활동비 50만원과 행사에 필요한 의상·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원도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전국적으로 4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자격 조건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대학 3~4학년 또는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가 추진 중인 박람회 인정특산물 사업도 비슷하다.

조직위는 30곳을 목표로 지난 1월까지 인정특산물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고작 19곳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지난달 말까지 2차 모집에 나섰지만 고작 8곳만 추가로 신청했다. 전 세계에서 80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생산유통 효과만 12조2000억원에 이르는 행사에 '여수박람회 인정 특산물'이라는 엠블럼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매력적인 사업인데도 참여가 적었던 것은 여수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남은 1년간 여수박람회가 국가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적극 알리는 등 본격적인 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박람회 열기 확산 지역민들 힘 모으자” 김용서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반드시 찾아보고 싶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 열기를 확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용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은 18일 취임 직후부터 무척 바빠졌다.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SOC 등 기반 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여수박람회의 개최 불을 일으키는 데는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정치·경제·종교·인문·문화에술계

등 각계 인사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내외에 여수 박람회 개최 불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반드시 찾아오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 열기를 확산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나 조직위, 전남도와 여수시 등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지역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www.hanbitgosi.co.kr
2011



합격대열에 동참한 한빛 수강생들



7·9급 공무원시험 퍼펙트 강좌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52-0252

35년 연속 합격자 수 1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